

“내가 바로 킬러”... 이란 골문 연다



**박지성 A매치 13골중 2골 작렬
 지동원·구자철 꺾게임 3골 합작
 기성용도 정조준... 승리 자신**

‘이란 킬러 다 모여라’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8강에서 이란을 상대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에는 이란에 강한 선수들이 많다. 이란은 한국에 유독 강한 팀이다. 상대 전적에서도 8



승7무9패로 한국이 뒤지고 있는데도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 4무2패로 이겨보지 못했다.
 한국 선수들도 이란이 8강 상대로 확정된 뒤에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8강 대진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란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였다.
 200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2-0으로 이긴 것이 가장 최근 승리다. 그러나 조광래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에는 이란에 강한 면모를 보인 선수들이 여럿 포진해 있어 기대를 걸게 한다. ‘주장’ 박지성이 이란에 강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2009년 2월과 6월, 테헤란과 서울을 오가며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지역예선에서 모두 0-1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A매치 13골 가운데 2골을 이란을 상대로 넣은 박지성은 19일 인도와 조별리그를 마친 뒤 “우승하려면 이란을 꺾어야 한다. 언제든 만나야 할 팀”이라며 “두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라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주 공격 루트로 자리를 잡은 지동원(20·전남)과 구자철(22·제주)도 최근 이란과 경기에서 필렐 날았다. 지난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3~4위 결정전에서 만난 이란과 경기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쏘아 올렸다.
 지동원은 2-3으로 뒤진 후반 43분과 44분에 연달아 헤딩골을 터뜨리며 4-3 역전승에 일등공신이 됐다. 구자철 역시 0-2로 끌려가던 후반 3분에 왼발 중거리슛으로 추격의 발판을 닦았다.
 지동원과 구자철은 당시 이란을 상대로 기본 좋은 대역전승을 합작했던 기억을 되살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한국의 4강 진출에 힘을 보낼 각오다. 이란을 상대로 골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성용(22·셀틱), 윤빛가람(21·경남)도 ‘이란 킬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기성용은 2009년 2월 이란 원정 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5분 아크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 때 강한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가 손으로 가까스로 쳐낸 것을 박지성이 달려들어 동점골을 넣었다. 사실상 어시스트였던 셈이다.
 윤빛가람 역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후반 33분 윤빛가람-서정진-박주영으로 이어지며 2-3을 만드는 만회골의 시작점이었던 점에서 이란과 경기에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다. /연합뉴스

광주FC 초대 주장 맡은 박기동 “선수들엔 믿음으로 보답 시민과 팬들에게 V선물”

“주장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남은 기간 선수단과 잘 맞춰서 광주 시민들과 팬들에게 승리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FC 기후에서 활약했던 공격수 박기동(24)이 광주 FC의 주장으로 2011시즌 돌풍에 앞장선다. 광주와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는 박기동은 “선수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희생하는 주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한술밥을 먹게 된 선수들이지만 손발을 맞춘 시간이 짧은 만큼 어색함도 있다.
 박기동은 “아직은 어색한 것도 있지만 힘들어도 도와주고 있고, 선수단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 분위기는 좋다. 우리보다 약한 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축구는 하고자 하는 정신력과 패기가 중요하다. 3월5일 개막전에 만나게 되는 첫 상대 대구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 선수단은 훈련량 많고 소소한 최만희 감독의 지휘아래 오전 7시부터 강행군을 하면서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다. 박기동에게는 이런 강행군이 오히려 반갑다.
 지난해 부상으로 전반기를 뛰지 못했



던 박기동은 “빨리 운동을 하고 싶었다. 일본에서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한국은 운동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돌아왔다. 힘든 기간이지만 광주에 정착할 때기에 당연히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 동계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격수 박기동의 목표는 “골을 많이 넣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주장다운 역할을 먼저 하겠다는 각오다.
 박기동은 “신인 선수로 당연히 신인 왕을 목표로 뛴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 광주 FC 돌풍을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진=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한 골도 못넣은 북한 축구 결국 예선 탈락

북한이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북한은 20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리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조별리그 D조 3차전 이라크와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북한은 1무2패, 조 3위에 그쳐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조동섭 북한 감독은 “선제골을 일찍 내 주면서 계획했던 전술이 틀어졌다. 후반

에 경기 내용이 좋아지면서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결국 골을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반 22분에 나온 케라르 자심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2승1패, 조 2위로 8강에 오른 지난 대회 우승팀 이라크는 22일 밤 10시25분 C조 1위 호주와 8강에서 맞붙는다.
 한국의 8강 상대로 확정된 이란은 카타르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와 3차전에서 3-0으로 완승을 거

웠다. 이번 대회 출전한 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8강 진출을 확정 지었던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3승을 거둔 유일한 나라가 됐다.
 UAE는 후반 추가 시간에 자책골까지 나와 1무2패, 조 최하위로 밀렸다.
 이번 대회는 20일 하루를 쉬고 2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요르단, 일본-카타르의 8강 경기가 이어진다.
 22일에는 호주-이라크, 이란-한국의 8강전이 열린다. /연합뉴스

무릎 부상 박주영 23일 그라운드 복귀

무릎 부상으로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출전이 무산됐던 박주영(AS모나코)이 조만간 그라운드에 복귀할 전망이다.
 박주영의 에이전트사인 템플러스스포츠(대표 이동업)는 20일 “박주영이 모나코 1군 선수들이 참가한 스페인 전지훈련에 합류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정상적

으로 훈련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오세르와 경기를 치렀던 모나코는 2주 동안 리그 경기가 쉬는 틈을 타서 지난 17일(한국시간) 오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북부의 페달라다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지난날 무릎 부상 이후 휴식을 취하다 재활 훈련에 나선 박주영도 최근 지휘봉을 잡은 로랑 바니드(43) 감독의 호출을 받고 전지훈련에 동행했다.
 모나코는 오는 23일 새벽 프랑스 발렌스의 조르주 퐁피두 스타디움에서 생테티엔과 친선전을 치르기로 예정돼 있다. 박주영의 그라운드 복귀도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路 Go Go~
 KTX타고가는 신나는 겨울여행**

www.4100tour.com

서울로 명소탐방 시티투어 기차여행(1박 2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연계차량	11:20	남산 케이볼카 탑승(면도 10분소요)-남산N타워 전망대 및 서울성곽, 동수대 등 관람(남산N타워 전망대 요금별도 8,000원)	
	11:50	청계천 산책(청계광장-모교전-광복교-광교교간/약 20분)	
	12:30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자유식
	13:50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청와대 뒷길 경유)	
	14:00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강명전-교대전/공해설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15:30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월요일은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으로 대체합니다.	
	16:40	한강 유람선 탑승(상류-동작대교-하류-당신철교/1시간소요)	
	20:00	숙소 체크인 및 자유시간	제공식
	07:30	기상 및 조식 후 용산으로 이동, 전쟁기념관 관람	
	10:00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 및 국립중앙박물관 이동	
	12:00	인사동 맛집에서 자유식	자유식
	13:00	인사동 시장 둘러보기	
	14:30	동대문시장 둘러보기	
	16:00	남산 한옥마을로 이동 및 관람	
KTX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KTX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요금안내(1박 2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요일구분	목포 - 용산 요금안내
월~목	136,000 129,000	월~목	140,000 133,000
금/토/일/공휴일	153,000 146,000	목포	157,000 150,000
월~목	131,000 125,000	월~목	135,000 128,000
금/토/일/공휴일	148,000 142,000	금/토/일/공휴일	152,000 145,000
월~목	128,000 121,000	월~목	131,000 125,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금/토/일/공휴일	148,000 142,000
월~목		월~목	128,000 121,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포함내역: KTX왕복열차비, 시티투어차량, 숙박비(일반호텔 또는 모텔), 경복궁입장료, 남산케이볼카비(면도), 한강유람선승선료, 가이드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13-359177 / 농협 352-0115-4438-33 예금주 이정우

유뉴남해여행사
 문의전화 061-287-4100-4200 / 284-1135 / 011-632-1133

서울로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연계차량	11:20	남산 케이볼카 탑승(면도 10분소요)	
	11:50	청계천 산책(청계광장-모교전-광복교-광교교간/약 20분)	
	12:30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자유식
	13:50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청와대 뒷길 경유)	
	14:00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강명전-교대전/공해설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15:30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14:00	여역도 한강공원 둘러보기 & 한강 유람선 승선 (상류-동작대교-하류-당신철교/1시간소요)	
KTX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KTX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요금안내(당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요일구분	목포 - 용산 요금안내
월~목	86,000 79,000	월~목	89,000 82,000
금/토/일/공휴일	88,000 81,000	목포	91,000 84,000
월~목	81,000 75,000	월~목	85,000 78,000
금/토/일/공휴일	83,000 77,000	금/토/일/공휴일	87,000 80,000
월~목	78,000 71,000	월~목	81,000 74,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금/토/일/공휴일	83,000 76,000
		월~목	78,000 71,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포함내역: KTX왕복열차비, 시티투어차량, 경복궁입장료, 남산케이볼카비(면도), 한강유람선승선료, 가이드

태백 눈꽃축제 (1월 22일~23일 무박 2일)

날자	교통	시간	일정
1월 22일	무궁화호	22:00~06:00	목포역출발-임성리역-일로역-동탄역-무안역-함평역-나주역-광주승정역-태백역도착
1월 23일	연계버스	06:00~06:30	(등반팀) 태백역-유일사일주도착-자유조식-태백산 산행(유일사-담골코스)-천제명신 태백산 눈꽃산행-천제명신 바라보는 동해 (편광팀) 태백역-용연동굴이동 용연동굴관람-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 동굴-중유석등 신비한 동굴세계 용연동굴출발-담골관망도착-자유조식
	무궁화호	14:00경 22:00경	석탄박물관, 단군성전, 눈꽃 축제장-눈썰매장(개인지출) 등 자유시간 담골관망 2주차장 출발-태백역이동 태백역 출발(열차내 석식 도시락 제공) 광주승정역-나주역-함평역-무안역-동탄역-일로역-임성리-목포역도착